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Adolescents' Types of Sexual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Sexual Abuse Incidents

이영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Yeong-Sug Yi*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which can prevent the adolescents from sexual derailment by identifying types of sexual attitudes and their perception of sexual abuse in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he sexual attitudes were grouped into three types: passive type, active chaser, and conservative introvert. Most adolescents belonged to passive type and least to trend of chaser.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tended to be passive to the matter of sex. They also had different perceptions to sexual attitude and sexual abuse incident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sex and grade. Thus, sex education with different contents and approache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gender and age seems to be effective.

2. Majority of the adolescents thought sexual abuses could take place at anytime and anywhere. Belief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and the victim would be a female was most common.

Most respondents thought the offender would be responsible for sexual abuse, and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Most were the replies that one would report the offender and go to counselling center for help. Although these replies are very desirable, there are doubts that if they would be able to behave that way in the actual situation. That is because it is hard to get help from counselling center due to the system and the lack of counselo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ystem to make it possible to give practical help to adolescents.

Key Words : sexual attitude, sexual abuse, sexual abuse incidents, sex education

I. 서론

최근 성폭력은 어린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발생되어 비상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 해 동안 청소년 성폭력 상담은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중 26.5%를 차지하여(보건복지부, 2002) 청소년도 성폭력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성적 발달이 급속적으로 일어나며 정신적으로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시기로서 이 때의 경험은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춘기의 시작은 종래의 13-14세에서 10-11세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차적 성 특징에 해당되는 생리 변화도 과거에 비하여 일찍부터 일어나고 있다(한정희,

2003).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하여 충족되어 건전한 인격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일찍부터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을 억압하여왔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놓지 못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왜곡된 교육관과 부적절한 입시제도로 인해 학교 성교육도 그 중요성을 잃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범람하고 있는 각종 대중 매체 및 인터넷 등 유해한 환경은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 자극만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폭력에 관심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방안으로 청소년에

* Corresponding author: Yeong-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9-4620
E-mail: ysyi@kunsan.ac.kr

게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성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서, 이미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성폭력을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한국성폭력상담소, 1997)으로 폭을 넓혀서 정의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밝힌 문헌들은 남녀, 연령, 성태도 또는 가해자 및 피해자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성폭력 개념(김은주, 1996; 권수현, 1998; 김울리, 2000; 염영희 등, 2001; 이영숙, 박경란, 2004)이나 원인(이영숙, 박경란, 2004)에 대한 인식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해도, 개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강간에 대해서도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은주, 1996)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개별 특성에 따른 성폭력 개념이나 원인에 대한 차이를 다루었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청소년의 성, 연령 및 성태도 등 개별적 특성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현재의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여 성적인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실시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과 유형별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청소년의 성, 연령 및 성태도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적인 성숙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성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Whitbeck et al, 1999)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성태도가 성폭력과 같은 문제와 관련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로는 부모나 교사 등 건전하고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가 대부분이다(이은정, 1996). 그들은 성 고민이 있을 때 대부분 친구나 선배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부모나 교사에게 상담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수인 것(신기숙, 2001)을 보아도 그들이 성에 대한 문제를 부모나 교사 등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관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성지식 습득경로는 pc통신, 인터넷 등 통신매체이며(구승희, 2001), 최대의 관심인 이성에 대해서도 스포츠 신문, 만화, 영화, 비디오, 소설 등을 통해 호기심만을 부풀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 요소가 산재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태도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 성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그 목적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는 성과 관련된 개별 항목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질문한 연구들(신남옥, 1992; 이지은, 1995; 박성정, 1996; 손연정, 1998)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성지식이나 성행동과 같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실태를 알고자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졌는데, 이성교제, 혼전 순결, 성에 대한 관심, 성관계, 성병 등과 같은 성과 관련된 개별 항목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는 등 개방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개별 항목에 대한 정보와 각 항목에 대한 남녀 및 연령 별 차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는 성교육을 실시한 이후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조사들(양주연, 1997; 하숙영, 1998; 임정아, 1998; 계수연, 1999)이다.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실시한 이후 전후 효과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교육 후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일관성 있게 밝힘으로써 성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청소년의 성태도가 다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것들(김태근, 1997; 조아미, 2000)로 이러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큼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 집단내의 개개인의 관점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가치관이 상이함(이정우 등, 2000)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성태도를 전반적으로 이

해하고 그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함을 몇 개의 유형으로 집산화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1) 성폭력 개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1992년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에 의하면 음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약취유인, 강도강간, 특수강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성차별의 관습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외에도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성윤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성욕보다 훨씬 강하며 통제하기 어려워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으나 여성의 성은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기능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성적 폭력인 강간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성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단순한 성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남정현, 1990).

그러나 성폭력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는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더구나 청소년 성피해자들은 성폭력을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MacDonald et al, 1995), 성적 활동이 정상인보다 더 많거나 혼란스러운 성 활동을 보이며 재회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기(Glasser & Frosch, 1988) 때문에 강간 이외의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모든 행위를 성적 폭력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성폭력 개념을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한국성폭력상담소, 1997)으로 폭을 넓혀서 정의한다든지, 성폭력의 유형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8가지로 제시(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하는 등 포괄적으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밤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덤벼들어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만 진짜 강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직장 내 성희롱 등 과거에는 성폭력으로

로 인지하지 않았던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여(심영희, 1998)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김승권 등, 2002)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성폭력 사건 및 이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교제중인 고등학생의 27.8%가 최소한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 하며(김용미, 김현옥, 2001),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여중고생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6.9%, 전화나 통신에서 음란성 메시지를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4%,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들은 경험은 9.3%,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추근거림 경험은 16.9%, 원하지 않는 성기노출경험은 47.2%, 성교를 강요당한 경험은 2.4%임을 밝혀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이정권, 1998)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그들 중 친근이나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성폭력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김광준, 2005)이며, 사건의 발생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사이며, 숙박업소나 피해자의 집 등이 사건 장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준, 2005).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 실태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성폭력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경험실태를 조사한 연구(김성희, 1998)에서, 여대생은 음담패설, 고의적인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불쾌감을 조성하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여대생의 인식이 상당히 폭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연구한 결과(권수현, 1998)에서는 이들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상적인 남성의 행동의 일부로 보는 성폭력 각본을 가지고 있고, 극히 일부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이 처한 관점에서 성폭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는 성이나 연령 등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고교생의 성폭력 의식을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

살펴본 연구(김울리, 2000)에서 여학생은 모든 영역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신체적 영역과 언어적 영역 중 음란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만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인지수준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잘못된 지식이 많음을 밝혀(염영희 등, 2001) 성폭력 인식에 성 및 연령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례에 대한 시각에서 남대대학생이 여대생과 달리 피해여성이 경솔하고 이전에 성경험이 있을 것이며 피해여성의 언어적 표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했다고 지적하는 등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시각으로 시각(이석재, 최성진, 2001)하는 차이를 보였다. 남녀의 시각 차이는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피해자를 성폭력 원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이영숙, 박경란, 2004)

성, 연령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김은주(1996)는 내면적으로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의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성 및 강간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강간에 대해서도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어 성태도가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여대생 집단에서 성폭력을 더 폭넓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김성희, 1998)을 보아도 성태도는 성폭력 사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중·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19일에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한 후, 7월 8일-16일 사이에 학년, 성별로 인원수를 안배하여 k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720명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여 694부를 회수,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367명(52.9%), 여학생 327명(47.1%)이며, 중학생 49.8%, 고등학생 50.2%로 대부분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92.6%), 경제수준은 대부분 중류에 속하는 학생이다(83.4%). 아버지의 학력은 중고졸이 61.2%, 대졸이상인 35.7%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고졸이 75.6%, 대졸이상인 19.3%이다.

2. 조사도구 및 분석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2000), 조아미(2000),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중 일부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성의 의미, 관심 및 윤리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행동적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성에 대한 태도를 좀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성윤리가 강함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0.57$).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은 발생장소, 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김은주(1996), 김울리(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중 일부를 기초로 14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유효응답지 694부를 SPSS / WIN을 사용하여 평균, 빈도, 요인분석(요인분석(사용된 요인모형은 주성분 분석방법, 요인회전은 Varimax 방법에 의거 직교회전하여 3요인을 추출),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χ^2 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

청소년의 성태도를 유형화시키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3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 변량 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 1(고유치 4.81, 설명변량 28.61%)은 주위의 성과 관련된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의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고유치 2.40, 설명변량 15.80%)는 성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성관심'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인 3(고유치 1.99, 설명변량 9.99%)은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경험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성윤리'라고 명명하였다. 이 문항들의 전체 설명력은 54.40%로서 청소년의 성태도를 상당부분 포괄하는 것이다.

성태도 요인에 따라 응답자들의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이들 집단의 분류에 적합한 군집의

〈표 1〉 성 태도 문항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성 의식)	요인 2 (성 관심)	요인 3 (성 윤리)
성적으로 강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남자답다.	.71	.07	-.03
인간의 성의 주된 목적은 쾌락이다.	.70	.17	-.02
혼전 성관계 후 임신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66	.21	.04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혼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괜찮다.	.66	.14	.11
사랑한다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64	-.11	.25
적극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남녀 관계에 도움이 된다.	.62	-.02	-.02
혼전 성관계 경험은 결혼생활에 도움을 준다.	.52	-.04	-.37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	-.50	.23	.29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49	.47	-.07
나는 성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03	.75	-.10
나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다.	.20	.73	-.03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변화와 용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05	.73	-.09
청소년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5	.52	-.09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	-.16	.00	.64
개방적인 성문화가 성적인 문제를 더 유발하는 것 같다.	.09	-.15	.56
이성교제를 한다면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2	-.14	.48
혼전 성관계는 여성에게만 불리하다.	-.08	.00	.44
강간은 약간 거친 성관계이다.	.03	.18	-.41
성병에 걸리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15	.09	.32
Eigenvalue	4.81	2.40	1.99
누적설명변량(%)	28.61	44.41	54.40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K-평균군집방법(강병서, 김계수, 1998)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상이한 특성을 지니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을 때 집단간 특성이 분명하고 인원 배분도 적당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표 2>에 성태도 요인이 군집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집단 1은 모든 면에서 중간정도의 성향을 가지나 특히 성윤리 요인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성향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성윤리적인 면에서도 약하며 성의식과 성적인 관심에서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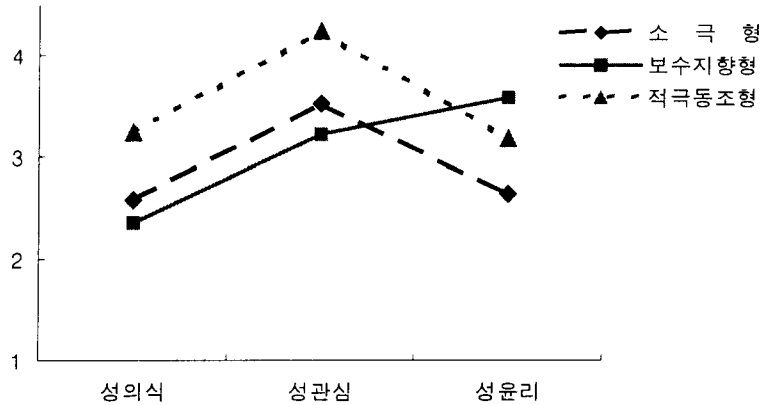
지 않은 성향을 나타내므로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42.2%가 속하였다. 집단 2는 모든 요인에서 낮은 성향을 보이나 성윤리 요인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성의식이 보수적이고 성에 대한 관심도 낮으나 성윤리에서는 상당히 강한 성향을 띠고 있는 집단으로 '보수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31.9%가 속하였다. 집단 3은 성의식이 진보적이고 성관심도 극히 높으나 성윤리는 세 집단 중 중간정도를 보이는 특징을 보여준다. 성의식과 성관심

〈표 2〉 3개 집단의 성태도 요인별 분산분석 및 Scheffé test 결과

집단	요인	성 의식		성 관심		성 윤리	
		M(SD)	S	M(SD)	S	M(SD)	S
소극형 (281명)		2.58(.35)	a	3.52(.57)	a	2.64(.36)	a
보수지향형(213명)		2.36(.32)	a	3.22(.64)	b	3.59(.36)	b
적극동조형(172명)		3.24(.40)	b	4.25(.51)	c	3.18(.55)	c
F값		297.51***		153.68***		314.60***	

***p<0.001

S = Scheffé test



[그림 1] 청소년 집단의 성태도 요인

이 집단 1과 집단 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성윤리 요인은 중간 정도로 나타나서 오늘날 청소년의 추세와 유사하여 '적극동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25.9%가 속하여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은 소극형이 가장 많았으며 적극동조형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은 성, 나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먼저 남녀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적극동조형이나 소극형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적극동조형이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에게서 가장 많은 유형인 적극동조형은 여학생에게서는 가장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남학생에게서 가장 적은 보수지향형은 여학생에게서는 비교적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추세동조적인 성태도는 남학생이 많이 지니며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태도는 여학생에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적인 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김태근, 1997; 손연정, 1998)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 집단은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소극형이 가장 많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성태도집단은 중학생은 보수지향형, 고교생은 적극동조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해 최근의 추세에 따라가는 청소년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고교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성에 관심도 많고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태도 집단이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계있는 것도 괄목할만한 것이다. 계층에 관계없이 소극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보수지향형과 적극동조형에 있어서는 중상류와 하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표 3〉 청소년의 성태도별 집단 특성

N(%)

		적극동조형	소극형	보수지향형	계	χ^2
성	남	107(35.0)	111(36.3)	88(28.8)	306(100.0)	39.74***
	여	42(13.4)	157(50.0)	115(36.6)	314(100.0)	
나이	중	51(15.6)	150(46.0)	125(38.3)	326(100.0)	28.37***
	고	98(33.4)	118(40.3)	77(26.3)	293(100.0)	
종교	유	88(24.0)	153(41.8)	125(34.2)	366(100.0)	.96
	무	61(24.0)	115(45.3)	78(30.7)	254(100.0)	
경제수준	상	12(21.1)	26(45.6)	19(33.3)	57(100.0)	8.75*
	중	121(23.6)	218(42.5)	174(33.9)	513(100.0)	
	하	16(36.4)	22(50.0)	6(13.6)	44(100.0)	

*P<0.05 ***P<0.001

즉 중상류계층은 적극동조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수지향형이 많은 반면, 하류계층에서는 적극동조형이 많고 보수지향형은 적어 계층간에 다른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써 청소년은 계층에 따라 다른 성태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성폭력 발생 실태에 대한 인식

1) 성 및 연령별 성폭력발생 실태 인식

<표 4>에서 제시된 결과처럼 청소년은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큰 장소나 시간은 어떠한 장소나 시간이라도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만 성폭력이 발생할 것

<표 4>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 인식 및 성별, 연령별 차이

N(%)

특성	응답범주	전체	성		χ^2	연령		χ^2
			남	여		중	고	
성폭력 장소	낯선곳	44(6.4)	24(6.6)	20(6.1)	23.30***	33(9.6)	11(3.2)	19.04**
	인적이드문곳	223(32.3)	118(32.5)	105(32.1)		117(34.2)	106(30.5)	
	유흥업소	39(5.7)	29(8.0)	10(3.1)		22(6.4)	17(4.9)	
	피해자·가해자집	48(6.9)	36(9.9)	12(3.6)		22(6.4)	26(7.5)	
	모든곳	336(48.7)	156(43.0)	180(55.0)		148(43.3)	187(53.9)	
	계	690(100.0)	363(100.0)	327(100.0)		342(100.0)	347(100.0)	
성폭력 시간	오후·한밤중	302(43.9)	172(47.4)	130(39.9)	8.00*	161(47.1)	141(40.8)	3.36
	이른새벽	18(2.6)	13(1.9)	5(0.7)		10(1.5)	8(1.2)	
	모든시간	369(53.6)	178(49.0)	191(58.5)		171(50.0)	197(56.9)	
	계	689(100.0)	363(52.7)	326(47.3)		342(49.7)	346(50.3)	
가해자의 성	여성	32(4.7)	23(6.5)	9(2.8)	5.08*	22(6.6)	10(2.9)	5.02*
	남성	645(95.3)	332(93.5)	313(97.2)		312(93.4)	332(97.1)	
	계	677(100.0)	355(100.0)	322(100.0)		334(100.0)	342(100.0)	
가해자의 특성	정신병환자	46(6.9)	25(7.1)	21(6.6)	21.28***	30(8.9)	16(4.8)	20.27***
	학력,지위가낮은사람	62(9.3)	44(12.6)	18(5.6)		42(12.5)	20(6.0)	
	학력,지위가높은사람	68(10.1)	47(13.4)	21(6.6)		42(12.5)	26(7.8)	
	모든사람	494(73.7)	234(66.9)	260(81.3)		223(66.2)	270(81.3)	
	계	670(100.0)	350(100.0)	320(100.0)		337(100.0)	332(100.0)	
피해자의 성	여성	624(92.3)	318(89.6)	306(95.3)	7.84**	305(91.0)	318(93.5)	1.46
	남성	52(7.7)	37(10.4)	15(4.7)		30(9.0)	22(6.5)	
	계	676(100.0)	355(100.0)	321(100.0)		335(100.0)	340(100.0)	
가해자-피해자관계	낯선사람	87(12.7)	50(13.8)	37(11.4)	3.91	60(17.6)	27(7.8)	21.61***
	주위사람	322(46.9)	178(49.2)	144(44.3)		167(49.0)	155(44.9)	
	모든사람	278(40.5)	134(37.0)	144(45.3)		114(33.4)	163(47.2)	
	계	687(100.0)	362(100.0)	325(100.0)		341(100.0)	345(100.0)	
성폭력책임자	가해자	346(50.5)	175(48.1)	171(53.3)	2.14	159(46.4)	186(54.5)	5.33
	피해자	16(2.3)	10(2.7)	6(1.9)		7(2.0)	9(2.6)	
	가해자피해자모두	323(47.2)	179(49.2)	144(44.9)		177(51.6)	146(42.8)	
	계	685(100.0)	364(100.0)	321(100.0)		343(100.0)	341(100.0)	
성폭력책임자의 성	여성	23(3.4)	18(5.0)	5(1.6)	14.16***	16(4.8)	7(2.0)	9.66**
	남성	236(34.6)	106(29.2)	130(40.8)		100(29.8)	136(39.4)	
	남여모두	423(62.0)	239(65.8)	184(57.7)		220(65.5)	202(58.6)	
	계	682(100.0)	363(100.0)	319(100.0)		336(100.0)	345(100.0)	
피해 후 대처	알리지 않음	60(9.0)	38(11.0)	22(6.9)	12.07**	28(8.4)	32(9.7)	3.16
	주위사람에게 알림	172(25.9)	83(23.9)	89(28.2)		92(27.7)	80(24.2)	
	복수	184(27.8)	111(32.0)	73(23.1)		83(25.0)	100(30.3)	
	신고 후 생활	247(37.3)	115(33.1)	132(41.8)		129(38.9)	118(35.8)	
	계	663(100.0)	347(100.0)	316(100.0)		332(100.0)	330(100.0)	
피해 후 상담자	친구	191(28.9)	119(35.1)	72(22.3)	20.24***	80(24.0)	111(33.8)	12.86**
	가족	203(30.7)	84(24.8)	119(36.8)		112(33.6)	90(27.4)	
	선생님	12(1.8)	9(2.7)	3(0.9)		10(3.0)	2(0.6)	
	전문상담기관	256(38.7)	127(37.5)	129(39.9)		131(39.3)	125(38.1)	
	계	662(100.0)	339(100.0)	323(100.0)		333(100.0)	328(100.0)	

*P<0.05 **P<0.01 ***P<0.001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이 결과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 성폭력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95% 이상이 성폭력 가해자는 남성으로 인식할 정도로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가해자를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의 92% 정도가 여성으로 인식할 정도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많아,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라기보다는 안면이 있는 주위사람과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어떤 사람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청소년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누구를 성폭력의 책임자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성폭력의 가해자를 책임자로 가장 많이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라고 인식하였으며, 피해자를 성폭력의 책임자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었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떴듯이 살아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이 복수하는 것과 주위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실제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심영희, 1990)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답 결과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성폭력의 피해를 겪은 후 주위에 도움 요청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청소년은 전문상담기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였으며, 선생님을 상담자로 지적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 성폭력 피해 후 교사를 상담자로 가장 적게 지적한 본 결과는 성에 대한 고민 의논 대상으로 친구나 선배를 지목하며 선생님에게는 극소수만 의논하며(이성희, 한은주, 1998) 성적희롱을 당한 후 86.2%가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결과(권일남, 김진화, 1997)와 유사하며, 비행청소년들이 친구를 이성문제의 상담자로 여기지만 교사는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결과(이경희, 1991)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응답한 '상담기관에 상담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결과는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청소년이 상담 대상으로 친구를 주로 지목하며 부모, 교사, 상담기관에는 잘 알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이정권, 1998; 권일남, 김진화, 1997)와는 상이하다. 이는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를 가정하고 질문한데 반하여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을 질문하여 나온 결과의 차이로 생각된다. 즉, 청소년의 의식은 성폭

력 피해를 경험한 후 전문상담기관 등에 상담하고 싶은 대처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은 현 사회에서의 성폭력 실태와 상당 부분 유사한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식이 현재의 성폭력 실태와 더 유사하였다. 이는 여학생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학생은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장소에서나 성폭력이 발생하리라는 인식을 하는 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으며, 성폭력 가해자를 남성,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남학생보다 높아 성폭력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였다. 반면 남학생은 여성이 가해자이며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인식을 여학생의 두 배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청소년은 여학생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남학생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성폭력 피해 후에 주위 사람에게 알려거나 신고하고 살아간다는 응답과, 상담자를 친구보다는 상담기관으로 지적하지만, 남학생은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거나 복수하겠다는 응답과 상담자를 친구로 지적하는 응답을 많이 하여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처방법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남학생에게 특히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성폭력의 책임자를 가해자로 가장 많이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라고 인식하였으며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남성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부여를 여성보다 덜 하는 경향을 보여 성차를 나타낸 것(김복태, 2001)과는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 성에 따른 차이에 덧붙여, 연령에 따른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볼 때 성에 노출된 경험이나 성교육 등 성폭력과 관련된 학습 기회 등의 차이가 성폭력에 대한 실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폭력 시간, 피해자의 성, 성폭력 책임자, 성폭력 피해 후 대처방법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였다. 이 결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폭력 현실에 근접한 인식을 함을 알 수 있다.

2) 성태도별 성폭력 사건 인식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 피해 후 대처 및 성폭력 피해 후 상담자에 대한 인식에서 성태도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소년의 성태도가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을 인식하는 시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임을 나타냈다.

가해자의 특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세 집단 모두 어떠한 사람이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집단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즉 보수지향형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정신병환자라든지 학력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적극동조형은 성폭력 가해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적극동조형이 소극형이나 보수

<표 5> 성태도 집단별 성폭력 사건 인식 차이

N(%)

특성	응답범주	적극동조형	소극형	보수지향형	전체	χ^2
성폭력장소	낯선곳	4(2.7)	20(7.5)	15(7.3)	39(6.3)	14.23
	인적이드문곳	41(27.7)	101(37.7)	62(30.2)	204(32.9)	
	유흥업소	10(6.8)	18(6.7)	10(4.9)	38(6.1)	
	피·가해자집	14(9.5)	12(4.5)	15(7.3)	41(6.6)	
	모든곳	79(53.4)	117(43.7)	103(50.2)	299(48.1)	
	계	148(100.0)	268(100.0)	205(100.0)	621(100.0)	
성폭력시간	오후	61(41.2)	125(46.8)	86(42.0)	272(43.9)	3.88
	이른새벽	6(4.1)	4(1.5)	5(2.4)	15(2.4)	
	모든시간	81(54.7)	138(51.7)	114(55.6)	333(53.7)	
	계	148(100.0)	267(100.0)	205(100.0)	620(100.0)	
가해자의성	여성	7(4.9)	13(4.9)	9(4.5)	29(4.8)	.040
	남성	136(95.1)	253(95.1)	190(95.5)	579(95.2)	
	계	143(100.0)	266(100.0)	199(100.0)	608(100.0)	
가해자의 특성	정신병환자	4(2.9)	19(7.3)	21(10.3)	44(7.3)	12.70*
	학력, 지위가 낮은사람	14(10.1)	16(6.2)	25(12.3)	55(9.2)	
	학력, 지위가 높은사람	15(10.9)	25(9.6)	18(8.9)	58(9.7)	
	모든사람	105(76.1)	200(76.9)	139(68.5)	444(73.9)	
	계	138(100.0)	260(100.0)	203(100.0)	601(100.0)	
피해자의 성	여성	130(91.5)	242(91.0)	188(94.5)	560(92.3)	2.07
	남성	12(8.5)	24(9.0)	11(5.5)	47(7.7)	
	계	142(100.0)	266(100.0)	199(100.0)	607(100.0)	
가해자- 피해자관계	낯선사람	14(9.6)	37(13.9)	32(15.5)	83(13.4)	11.01*
	주위사람	56(38.4)	131(49.2)	97(47.1)	284(46.0)	
	모든사람	76(52.1)	98(36.8)	77(37.4)	251(40.6)	
	계	146(100.0)	266(100.0)	206(100.0)	618(100.0)	
성폭력 책임자	가해자	79(53.4)	126(47.9)	101(49.5)	306(49.8)	1.64
	피해자	5(3.4)	7(2.7)	5(2.5)	17(2.8)	
	가해자 피해자 모두	64(43.2)	130(49.4)	98(48.0)	292(47.5)	
	계	148(100.0)	263(100.0)	204(100.0)	615(100.0)	
성폭력 책임자의 성	여성	6(4.1)	9(3.4)	6(3.0)	21(3.4)	3.46
	남성	52(35.4)	95(36.0)	58(28.9)	205(33.5)	
	남여모두	89(60.5)	160(60.6)	137(68.2)	386(63.1)	
	계	147(100.0)	264(100.0)	201(100.0)	612(100.0)	
성폭력 피해 후 대처	알리지 않음	22(15.6)	24(9.3)	5(2.5)	51(8.6)	36.33***
	주위사람에게 알림	27(19.1)	72(28.0)	59(29.8)	158(26.5)	
	복수	44(31.2)	81(31.5)	39(19.7)	164(27.5)	
	신고 후 생활	48(34.0)	80(31.1)	95(48.0)	223(37.4)	
	계	141(100.0)	257(100.0)	198(100.0)	596(100.0)	
성폭력 피해 후 상담자	친구	48(36.1)	83(31.7)	38(18.8)	169(28.3)	15.82*
	가족	33(24.8)	82(31.3)	76(37.6)	191(32.0)	
	선생님	2(1.5)	4(1.5)	3(1.5)	9(1.5)	
	전문상담기관	50(37.6)	93(35.5)	85(42.1)	228(38.2)	
	계	133(100.0)	262(100.0)	202(100.0)	597(100.0)	

*P<0.05 **P<0.01 ***P<0.001

지향형에 비해 성폭력 사건을 현실과 근접하게 인식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해자와 피해자관계를 인식하는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적극동조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낯선 관계라는 데에 가장 적게, 모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데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보수지향형과 소극형은 주위사람이라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성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신고 후 생활하겠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은 가장 적게 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보수지향형 집단에서 특히 강했고 적극동조형 집단에서 가장 약했다. 성폭력을 당한 후 복수하겠다는 응답이 상당 비율 나와 위협스러운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생각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상담자 선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적극동조형은 상담자로서 친구나 전문상담기관을 비슷한 정도로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응답한데 반해, 보수지향형은 가족이나 전문상담기관을 지적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장소나 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 성폭력 책임자와 성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성태도 유형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중·고등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태도는 유형별로 적극동조형 집단, 소극형 집단, 보수지향형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소극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적극동조형에 속한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시대 조류에 따라가는 청소년보다는 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은 성, 연령 및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보수지향형이 가장 적은 반면, 여학생은 적극동조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학생은 적극동조형이 가장 적은 반면, 고등학생은 적극동조형이 가장 적었다. 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상류계층은 적극동조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수지향형이 많은 반면, 하류계층에서는 적극동조형이 많고 보수지향형은 적어 계층간

에 다른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말해준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폭력이 일어날 장소와 시간으로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장소나 시간 다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해자는 남성으로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안면이 있는 주위사람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책임자로는 가해자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몇몇이 살아간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힘들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의 도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청소년이 극히 낮은 것도 청소년들에게 비친 현재의 교사의 위상을 보게 해준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성교육 연수 기회를 늘려 청소년과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역시 크게 요망된다. Holtzman과 Rubinson(1995)의 지적과 같이, 건전한 성태도를 가진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이 위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성적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은 성폭력 책임자를 인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와 피해자관계, 피해 후 상담자 등 항목에 대해서는 성, 연령, 성태도에 따른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한 학급 또는 한 학년 집단 대상의 성교육이 성과 성태도 별 집단으로 재편성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 학급 또는 한 학년 이상의 대규모 집단 대상의 강의 위주의 획일적 교육방식보다는 특성에 따라 편성된 소집단으로 교육되어야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 연령, 성태도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집단별 성폭력 인식을 연구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춘 사건이 부각되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된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사는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성태도 유형을 밝히고 청소년의 개별 특성집단과 성폭력사건의 인식간의 관계를 규명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집단 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와,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초자료, 그리고 성폭력 예방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주의가 요망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층의 인식을 조사해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성인층을 포함한 다른 연령층의 인식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것과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성태도, 성폭력, 성폭력사건, 성교육

참 고 문 헌

- 강병서, 김계수 (1998). 통계분석을 위한 spss win easy. 법문사.
- 권일남, 김진화 (1997). 서울지역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9(2), 81-94.
- 계수연 (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현 (1998). 남성성과 성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승희 (2001). 청소년과 성인의 성의식 변화 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김광준 (2005). 청소년성폭력: 성폭력 전문의료기관에서의 경험. 대한산부회지, 48(7), 1645-1653.
-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49-268
- 김성희 (1998). 전남지역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실태. 한국가정과학회지, 1(2), 37-47.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김연수 (2002).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역할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미, 김현욱 (2001). 남녀고교생이 이성교제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김율리 (2000). 청소년의 성폭력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1996).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 (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현 (1990). 한국에서의 강간현황. 정신건강연구, 9, 14-25.
-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2). 2001년 성폭력 상담 실적.
- 손연정 (1998). 고등학교 학생의 성지식, 태도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숙 (2001). 청소년 성문화와 유해환경. 2001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차 워크샵 자료.
- 신남욱 (1992). 고교생의 성지식 정도와 태도 및 성교육 요구 시기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 (1990). 숨은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 창간호.
-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 양주연 (1997).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영희, 이규은, 윤양소 (2001). 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547-559.
- 이경희 (1991).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조직내의 관계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249-265.
- 이석재, 최성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성희, 한은주 (1998). 청소년의 성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72-92.
- 이영숙, 박경란 (2004). 청소년의 성폭력 개념 및 원인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6(4), 157-166.
- 이은정 (1996). 청소년 성지식과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권 (1998).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박미석, 정진희 (2000).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 체계(IV). 대한가정학회지, 38 (12), 207-223.
- 이지은 (1995). 우리나라 일부지역 산업장 청소년의 피임

- 지식, 성태도 및 성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1998).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 하숙영 (1998). 성교육이 여자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겨울방학성교육 교사프로그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 한정희 (2003)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와 요구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lasser, D, Frosch, S (1988). *Child Sexual Abuse*. Macmillan Education.
- Holtzman, D, Rubinson, R (1995). Parent and peer communication effects on AIDS. related behavior among U.S. high school stud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7(6), 235-268.
- MacDonald, K, Lambie, I, Simmons, L (1995). *Counseling for sexual abuse*. Oxford Univ. Press.
- Whitbeck, LB, Yoder, KA, Hoyt, DR, Conger, RD (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934-947.

(2005. 06. 24 접수; 2005. 10. 15 채택)